

Video Tape의 專門 메이커 鮮京化學(株)



鮮京化學(株)의 李起東社長

3月號 電子振興 業界探訪者는 컬러 TV의 市販 및 放映 이후 業界의 關心을 集中시키고 歐美, 日本의 世界 有數 메이커들과 어깨를 겨루며 生産에 뛰어들은 國內 唯一의 Video Tape 專門 메이커인 鮮京化學(株)와 電氣用品製造業體의 先頭走者로서 KS 마크를 獲得한 코발트電氣(株)를 찾았다.(編輯者註)

Video Tape는 高度의 尖端技術이 필요한 世界에도 이의 生産 메이커가 몇個 業體에 불과한 實情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國內에서 生産한다는 것은 일종의 自負心마저 느끼게 해주는 好뭇한 소식 不 可 缺 乏 矣.

소탈한 人格의 李起東社長을 찾은 週末의 아침은 거리마다 봄기운으로 갑자기 생기에 차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Video Tape의 世界的인 메이커를 묻자 李社長의 表情은 갑자기 밝아지면서 『현재 비데오 테이프 메이커는 世界적으로도 몇개 業體에 不 可 缺 乏 矣. 日本은 소니, TDK, 후지, 히다찌 등의 메이커가 있으며 美國에는 듀폰, 메모렉스, 3M이 있고 유럽쪽으로는 네델란드의 필립스, 독일의 BASF로 손꼽을 정도지요』라고 說明한다.

1983年 5月까지 政府의 保護 아래 技術開發에 拍車를 가해 온 鮮京化學은 이번 3月부터의 市販은 그 開發過程에 있어 혼신의 힘을 기울인 노력의 結晶임을 알 수 있다. 1977年 11月 비데오 테이프 事業을 위한 프로젝트 팀을 構成하여 출발하기 시작한 同社는 이듬해 2月, Video Tape의 生産을 위한 各種 設備 및 製造技術上의 各種 特許, 文헌, 情報 등 종합자료를 정리한데 이어 8月에는 프로젝트 팀을 日本에 파견하여 정리한 資料들을 確認하고 研究活動을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황무지나 다름 없는 환경 속에서 출발한 事業이라 그 고통은 한두가지가 아니었죠』라고 李起東社長은 草創期의 어려움을 說明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선 鮮京이 Video Tape 開發을 위해서 먼저 시작한 것이 Audio Tape의 生産이었다.

1979年 2月까지 工場設備에 필요한 各種 기재를 발주하며 試驗室에서 研究를 계속한 同社는 드디어 12月에 工場을 設置하고 Audio Tape를 生産하면서 蓄積해온 운전상의 노하우를 定立할 수 있었다고 하며 1980年 12月에

Video Tape의 試製品 生産에 성공한 同社는 금년 3月부터 市販에 나섰다

Video Tape는 VTR의 普及에 따라서 그 需要가 增加함은 물론이며 이제 VTR은 1975년 BETA型, 1976년 VHS型이 開發된 이래 電子製品 중 최대의 성장제품으로 등장하였으며 특히 日本에선 컬러TV 이후 主完製品으로 浮上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世界的인 VTR의 폭발적인 普及趨勢에 따라 Video Tape의 需要는 심한 供給不足 현상을 빚고 있어 戰略的인 輸出品目으로 有望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草創期에는 Know-how가 없기 때문에 先進國의 Base Film 즉 Polyester Film을 조사하여 自體에서 開發한 鮮京化學의 Video Tape事業은 『日本이나 독일, 미국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곧 이들 선진국의 메이커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으리라 봅니다. 비데오 테이프의 기술은 베이스 필름, 즉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物性を 여하이 이해하고 充足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박지, 스텝핑 포일, 전자공업에 쓰이는 특수절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특성을 어떻게 개발해서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李起東社長은 國際競爭에 뛰어들 수 있는 時期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히고 그러나 상당히 희망적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李社長은 自社의 製品을 說明하는 가운데 『비데오 테이프는 Drop Out, 수명, Still Life, 畫面의 電子變換 特性이 생명인데 이러한 절대치들이 일본의 후지, TDK 등의 수준에 거의 근접되어 있고 깨끗한 화면, 彩度 등에도 하등 손색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현재 VTR 및 Video Tape는 모두 日本이 世界市場의 90% 이상을 占有하고 있으며 鮮京은 작년 12月末 東南亞地域에 약 5만 달러의 試製品을 이미 輸出하였으며 價格도 日本製品과 同一한 수준으로 제값을 받고 있다고 한다.

製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현재까지 20만 달러의 輸出을 이룩하였으며 世界各國의 바이어들이 찾아와서 약 8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진행 중

에 있으며 今年度 輸出目標을 1천 8백만 달러로 策定했다고 한다.

鮮京化學의 生産規模는 月 100만개로 製品은 Pan-Cake Reel과 Compact Cassette의 型으로 나누어 販賣되고 있는데 東南亞에는 Pan-Cake Reel이 유럽과 歐美國에는 Compact型이 주로 輸出된다고 한다.

그러나 國內市場은 VTR의 輸入禁止와 아직 미미한 普及으로 需要는 겨우 1만대에 불과하여 輸出에 專念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Video Tape産業은 이제 國家의 次元의 産業으로 文化水準의 向上과 밀접한 關係가 있어 그 波及效果가 크다고 밝히고 아직도 金融이나 財政面에서 低利자가 되지 않고 있어 고충이 많다고 李起東社長은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현재 鮮京化學은 1500만 달러의 外貨를 대부분 會社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開發費에만 20억이 投入되었다고 하며 상환기간은 닥아오고 아직도 完全開發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開發費의 補助일환으로 장기처리의 금융혜택이라도 있다면 숨통이 트이겠다고 한다. 또한 關稅問題에 있어서도 폴리에스테르 필름 40%, 後加工施設의 稅率도 40%로 되어 있어 이의 稅率壓迫도 상당한 문제로 解決이 시급하다고 한다.

1976년 12月 會社를 創立, 1977년 폴리에스테르 製造技術을 KIST와 共同으로 開發하는데 成功한 同社는 水原과 天安에 工場을 各各 設置하고 1981년 3月 폴리에스테르 필름 年産5000% 規模와 後加工施設을 多數 保有하고 稼動에 한참이다. 水原工場에서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및 그 後加工製品을 生産하고 淸安공장에서는 Video Tape 및 Audio Tape를 生産하고 있는데 世界에서 4번째로 Video Tape를 만들고 있다는 自負心으로 650名의 從業員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앞으로 出現할 後發業體들의 추격을 어떻게 뿌리칠 계획이냐고 묻자 『항상 첨단기술의 개발로 이겨 나갈 수 밖에 없다』고 李起東社長은 힘주어 말한다.